

장소탐방 01

김중업박물관

천 년 문화 지층 위에
세워진 건축

박제유
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





프랑스의 르 코르뷔제 사무실에서 3년간 근무하고 수학한 건축가 김중업이 귀국한 바로 이듬해인 1957년 유유산업 공장의 설계를 맡게 된다. 1941년 설립된 (주)유유제약은 6·25전쟁 이후 종합비타민과 결핵약을 제조·보급하면서 급성장함에 따라 안양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기로 하고 김중업에게 설계를 맡겼다.

건립된 유유산업 공장은 건축가 김중업의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근대건축을 받아들이고 지향한 20세기 초 서구 근대건축의 특징이나, 실제 일하며 사샤한 르 코르뷔제의 영향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보통 김중업의



1960년대 유유산업 공장 전경(자료: 안양시청)





현상공포 시 조감도(자료: 제이유건축사사무소)

김중업박물관 주변 전경(©윤준환)



대표작으로 떠올리는 프랑스대사관이나 제주대학 본관의 조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명료한 구조체계, 상이한 재료의 사용, 엄격한 비례에 따른 벽면의 분할, 투명한 벽체 등 서구 근대건축의 특징 중 많은 부분들이 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어 우리 근대건축의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59년 준공된 유유산업 공장은 연구소(현재의 김중업관)가 먼저 착공되고 이어서 작업장(현재의 문화누리관의 일부)과 수위실이 증축되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후에 공장은 꾸준히 확장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덧붙은 건물 중 일부는 김중업이 설계한 디자인과 유사하게 지어졌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런 고려 없이 김중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구잡이로 증축돼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총 19동의 건물로 채워지게 되었다.

유유산업 공장 부지의 재탄생

2003년 유유산업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천 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에 안양의 시민단체와 건축가들이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근대건축물을 ‘건축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하게 된다. 부지 매입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부지를 확보한 안양시는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문화관광광역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이어 2008년 10월에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으로 설계 공모를 하기에 이른다.

당시 부지 주변 삼성천 일대는 ‘안양예술공원’이 꾸며져 시민을 위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할 전초기지가 필요했다. 즉 유유산업 부지를 안양예술공원과 연계된 각종 전시와 공연 등의 실내 활동을 지원할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의도로 유유산업공장 19개 건물들 중 무질서하게 덧대어진 일부만 철거하고 대부분을 활용하는 지침을 가지고 공모전이 시행되었는데, 김중업 설계의 건물은 원형을 유지·복원하고 그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당선된 필자의 안은 김중업이 설계한 4개 동(연구소, 작업장, 보일러실, 수위실)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복원시키고 이들과 연결되거나 덧붙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성적이고 비물질적인 느낌을 주어 김중업 건물을 부각시키도록 제안하였다.

역사공간으로서의 문화재(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영역 위에 김중업



삼성천에서 본 문화누리관(©윤준환)

건축과 더불어 존재한 유유산업 부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상징적 장소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는 지금 기억해야 할 의미와 감성들이 융해된 ‘시간의 풍경(time-SPACE)’이라는 개념을 흔적(Trace)과 경계(Edge), 그리고 맥락(Context)으로 풀어내고자 의도하였다. 당선안을 가지고 안양시와 협의하면서 계획 및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던 중 ‘안양사’ 터를 입증하는 유물이 나와 설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안양’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안양사’ 터로 밝혀짐에 따라 설계는 중단되고, 결국 2년의 시간을 들여 발굴을 하고 유적을 복원하게 된다.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양사’의 실체는 안양의

역사를 1,000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에 시와 문화재청은 안양사 터의 유적을 복원시키도록 최소한의 건물만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김종업 건물로서 복원하기로 한 4개 동의 건물과 안양사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창고 건물과 어울마당(보일러동)의 지원용 건물 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안양시는 한양대 팀에 ‘유유산지 활용 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설계자인 필자 측 제이유건축에 다시 변경 계획안을 의뢰하게 되었다.



철거건물의 기둥 흔적(©윤준환)

김중업박물관의 설계 방향

김중업박물관의 부지, 즉 유유산업 공장부지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삼성산을 기댄 편평한 대지에 안양천과 만나기 직전의 삼성천이 바로 옆에 있다. 예로부터 돌이 많고 지반이 단단하며 안양천이 가깝게 있어 좋은 물을 써야 하는 제약회사가 들어서기에 아주 적절한 땅이었다. 물론 제약회사에만 좋은 조건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싼 산세에 넓지도 좁지도 않고 맑은 물이 흐르는 양지바른 이 부지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용되었다. 부지 뒤쪽에 있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 ‘마애석종’과 유유산업 입구에 서기 827년에 건립되었다는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초사 이후에는 고려시대 큰 절인 ‘안양사’가 있는데,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이 절의 이름은 현재 시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절은 고려 태조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규모의 안양사는 이후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쇠퇴하였고, 이후 유유산업이 들어서기 직전에는 포도밭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1,200년이 넘는 문화적 지층의 역사를 가진 부지에 김중업박물관이 들어선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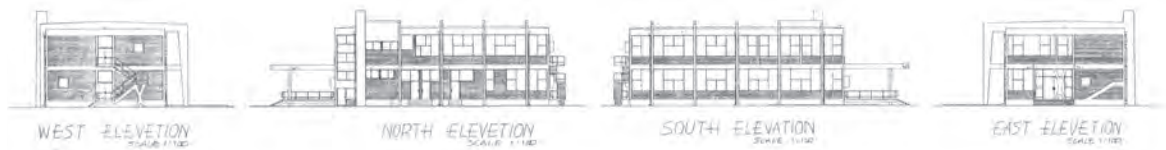
건축에 있어 최종적으로 남게 된 6개의 건물들과 무허가 물탱크 건물로써는 필요한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부지 전체의 성격이 당초 ‘안양복합문화관’에서 ‘안양천년문화관’으로 ‘안양사’ 터의 비중이 더 크게끔 바뀌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개관에 맞춰 ‘안양천년문화관’에서 ‘김중업박물관’으로 건축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지킴소(수위실)

부지 입구의 동그란 수위실은 원형의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넓게 튀어나온 지붕과 처마로 삼성천 입구 쪽에서 눈에 띄는 건물로서 김중업박물관 입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설계 당시에는 문화지킴소로서 유류산업 공장의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는 곳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수위실로 사용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유류산업 공장 건물은 비록 이것이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작이 아니고 작품성이 여타 작품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나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공장 건물로서는 드물게 건축가가 설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중업관

입구에 들어서면 대지 한편의 김중업관은 유류산업 공장 최초의 건물로, 노출된 구조체가 강렬하면서도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노출된 구조체뿐만 아니라 입구의 돌출 캐노피와 Y자를 응용한 기둥, 후면 외부계단의 우아하고 독창적인 디테일, 그리고 내부 복도 벽의 창문패턴과 문의 스케일 등은 건축가 김중업의 유려한 조형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적·시공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을 최대한 유지하고 원래와 다르게 교체 설치된 창문도 초기 설계도면에 따라 원형 복원하도록 설계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중업관(©윤준환)





김중업관 내부(©윤준환)

김중업관 전시실 내부(©윤준환)





문화누리관(©윤준환)





문화누리관 내부 계단(©윤준환)

문화누리관

대지 오른쪽의 문화누리관은 2층을 캔틸레버 구조로 살짝 드러낸 좀 더 큰 규모로, 김중업관과는 건축언어를 다르게 하여 두 건물을 확실히 대비시켰다. 이는 연구소와 작업장(공장)이라는 기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음·양의 디자인적 대비효과를 고려한 것처럼 보였다. 조각가 박종배의 모자상과 파이오니아상이 설치된 직각으로 파낸 모서리, 창문에 덧댄 철제 루버창, 연통구멍을 막는 원형 덮개 등 공장 건물로서는 흔치 않은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간직한 건물이다.

그러나 문화누리관은 원래 제약회사 공장(작업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존 평면은 마치 미로를 연상시키는 무척 복잡한 복도와 방의

평면을 갖고 있다. 이를 전시·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주된 복도들을 유지하면서 많은 내부 벽체들을 철거해야 하였고, 중앙 부분에 빛우물을 두어 수직적인 연결과 공간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3층은 박공 형태의 지붕을 하고 있었고, 일부분은 매우 허름한 합판으로 지어진 가건물로서 상태가 몹시 나빴다. 새로운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중업의 초기 증축 안에서 보이는 평지붕을 고층·채택하여 현재와 같이 설계한 것이 해석의 차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김중업의 의도에 부합함은 물론 김중업관과도 어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어울마당과 굴뚝(©윤준환)



어울마당 부대시설(©윤준환)

어울마당

김종업관 뒤편에 위치한 '어울마당'이라는 건물은 기존에 보일러실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층고가 높고 상부의 목조트러스가 아름다운 건물로, 이곳을 작은 공연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준비실, 분장실, 화장실 같은 부대공간이 없어 오른편의 창고 건물을 형태만 유지한 채 전면 리모델링하여 사용케 하

고, 이 두 건물을 새로운 회랑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명·음향장치 등의 설치를 해야 하였고,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 철제구조물을 목재 트러스 하부에 보강할 수밖에 없어 본래의 목재 트러스 구조물의 아름다움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안양사지관(©윤준환)



안양사지관 2층 로비(©윤준환)



안양사지관 내부 계단(©윤준환)



밤에 본 안양사지관(©윤준환)

안양사지관

맨 안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 이번에 리노베이션으로 새로이 단장하여 안양사 박물관이 된 '안양사지관'이다. 다른 김중업 건물들과 다른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였지만 띄엄띄엄 들어선 건물들과 대지 안쪽에 자리 잡은 때문인지 든든한 배경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건물은 90년대에 창고로 지어진 것으로 현상공모 시에는 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에메니티 시설로서 휴게와 체험을 중심으로 꾸미려고 하였다. 외장은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었지만 골조가 철골조로 튼튼하고, 층고가 높아 여러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안양사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에 대한 역사관으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되어 명칭 공모를 통해 '안양천년관'으로 명명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현재의 '안양사지관'으로 변경되었다. '안양천년관'이란 명

칭처럼 이 건물에 시간의 무게감을 부여하고 싶었는데 원래의 규모와 기둥의 모듈이 우리 전통 건축의 보물인 '종묘'와 유사하였고, 종묘가 갖는 시간의 무게감이 안양천년관의 상징성에 딱 부합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종묘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1,000년의 시간이 축적된, 장중하지만 현대적인 모습을 살려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고대(안양사터), 근대(김중업관 등 4개 동), 그리고 현대(안양사지관)를 아우르는 건축의 지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철거된 건물들의 일부는 골조를 남겨 다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일부 외곽 기둥만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현재 이 기둥들은 조경의 일부로서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고 또 예술작품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중업관 후면 계단(©윤준환)



글을 마치며

처음 유류산업 공장 건물을 보았을 때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명쾌하게 드러난 구조 입면의 비례, 창호의 구성, 계단과 난간의 디테일 등등이 정말 아름다웠다. 자연스레 리모델링 작업은 김중업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복원하고 리노베이션 건물은 최대한 중성화해 배경처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대가의 작품에 손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 김중업박물관은 개관하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건축가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생겼으며, 개관 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호응도 좋다고 한다. 그것을 필자가 설계하였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관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이 관련되어 있었고, 자문위원회도 많았다. 게다가 리모델링의 특성상 감리를 해야 하였는데 방법이 없어, 설계자로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시공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시공 중에 공무원의 지시에 디자인과 재료가 바뀌기도 하고, 자문위원단 이야기에 의도치 않은 계획을 하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부분을 책임 있는 건축가로서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끌고 나갔어야 하였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최초로 건축가의 이름을 딴 김중업박물관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이 빈 땅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김중업박물관’의 건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질 건축적·문화적 지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질문과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김중업박물관은 안양 문화예술공원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건축가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일반인들에게 건축가의 존재를 알리고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